



지난달 21일 정기명 시장이 상생협력 소통 간담회를 위해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을 방문했다.



지난 9월 17일 정 시장이 여수국가산단 내 용호기계기술을 방문했다.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민선8기 대표 소통창구 ‘호평’

정기명 시장, 현장 찾아 시민과 호호...격의없는 의견교환
38회 진행하며 2700여명 만나...건의 62건 중 41건 완료

민선 8기 여수시가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중심 소통 시책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이 호평을 얻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여수시는 소통행정을 시정방침 최우선에 두고

‘소통과 화합’을 시 행정 전반의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아 시민과 지역정가 등과 소통해 왔다.

특히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시장이 매달 시민을 직접 찾아 격의 없는 대

화를 나누는 민선 8기 여수시의 대표 소통 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느 곳이든 누구든 대상이 된다. 실제 정 시장은 섬 지역 마을회관을 비롯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전통시장, 관내 기업 등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났다. 현장 속 민원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구현’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부

터 올해 11월까지 총 38회를 추진, 2700여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했으며, 62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해 41건을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2026여수세계세박람회를 고려해 산단 내 기업과 전통시장, 지역 상가 등을 집중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관계자 등 서비스업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현재 7개의 SNS 채널과 시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소통행정의 대표 성과로는 ‘본청사 별관 증축 확정’이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다.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3려 통합 이후 지난 26년간 수많은 정치적 논란 속에 민선 7기에 이르렀지만 누구도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한 숙원 사업으로, 소통행정을 강조한 민선 8기 정 시장이 ‘지

역 정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의 주인인 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은 시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이자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확대

순천시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를 결성했다. 이번 펀드는 2025년 모태펀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계정’ 출자사업에 시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조성됐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펀드이며 그중 문화계정은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는 모태펀드 출자금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 투자사가 함께 조성한 905억원 규모의 펀드로, 시는 이 가운데 50억원 (IP 30억원, 신기술 20억원)을 출자했다.

전략펀드는 시 출자금의 200% 이상이 지역 콘텐츠 기업에 투자되도록 설계된 ‘지역 환류형 구조’가 핵심이다.

시가 50억원을 출자하면 운용사는 그 2배인 100억원 이상을 지역기업이나 순천이전 예정 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는 분야별 스마트시티벤처스 (IP분야) 와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신기술 분야) 가 선정됐으며, 두 기관은 모태펀드 출자 조건에 따라 해당 자금을 지역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펀드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부담 없이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펀드 결성은 순천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다”며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이 창출한 IP가 전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정책·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 참여 육성펀드 결성...100억원 투자
노관규 시장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노력”



최근 문을 연 순천 글로벌벤처 허브센터

한편 순천시는 국가장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글로벌벤처허브센터, 남문터광장, 원도심 반공실 일대를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며, 30여개 이상의 콘텐츠 기업 유치를 완료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철강산업체 금융 지원 본격화

11일까지 접수...산업위기지역 기업 경영부담 완화

광양시는 최근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철강산업체들에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철강산업 위축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 정부가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광양시 소재 1차 급속제조업 (C24) 기업과 이차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리 중 최대 3%p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시설자금 (기계설비 구입, 공

장 설립, 토지매입, 건축, 시설 확충 등 자선채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철강산업체들에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까지이며, 희망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과 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1월 중순경 추가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연계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해중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지역 철강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장흥군민과 2025 송년 콘서트
18일 장흥문화회관 대공연장

장흥군이 군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18일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2025 송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2025 송년 콘서트는 장흥군민들을 위한 자리로, 군민들의 화합과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출연 가수로는 트로트계 요정 요요미, 미소천사 정다경, 뛰어난 가창력 빈에서 등으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 (061-860-5802) 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공연과 함께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장흥 ‘외국인 유학생 STAY 프로그램’ 성료

지역 5개 대학 연계 취업특강
산업체 탐방·문화체험 진행

장흥군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고 지역민과의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RISE 사업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STAY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대를 비롯해 순천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한영대 등 5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대학 관계자 등 총 3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군정 탐방·봉사활동, 지역 산업체 견학, 취업 특강, 관광·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흥군의 산업·문화·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첫날에는 군정 주변 청소와 민원 안내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지역 산업체를 방문해 취업 가능 분야를 탐색했다. 이어 전



장흥군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대학교 RISE 사업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STAY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문 강사의 취업 특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최신 취업 트렌드를 배우며 실장적인 진로 준비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장흥 특산물인 한우를 맛보며 지역 음식 문화를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우드랜드에서 산림휴양과 문화체험을 즐기고, 전통시장과 중앙로 상가에서 물품 구매 체험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남진장흥 물축제에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지역 주민과

교류,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 확대, 유학생 대상 취업 상담·생활 정착 프로그램 강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흥군의 산업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취업과 정주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행사였다”며 “대학과 협력해 청년 인재들이 장흥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고흥, 내년도 노인일자리 최대 규모 모집

5일까지 접수...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등에 5206명

고흥군은 2026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207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5206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5일까지며, 읍·면사무소와 지역 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노인복지관) 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4520명) 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역연금 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분야는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야외 공공시설관리, 우리마을 자원재활용단, 해수욕장 환경관리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다.

노인역량활용사업 (436명) 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월 76만1000원 (주휴수

당 포함) 의 급여가 지급된다.

취약계층 돌봄지원, 일자리 현장 운영지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등 활동성 있는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가 운영된다.

공동체사업단 (250명) 은 사업단별로 근무시간과 급여가 상이하며 (월 25만원+수익금), 제조·판매형 사업,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소득 수준,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을 고려해 수행기관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자체 선발하며, 12월 말까지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활동은 2026년 1월부터 시작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